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vol.9

임응식 스크랩북 및 녹화물 총 목록집

_ 임응식 스크랩북 자료 목록

_ 임응식 녹화물 자료 목록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사진사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연구를 목적으로 2009년 1월 가현문화재단에서 설립한 학술연구기관입니다.

발행 가현문화재단
주소 138-724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4 한미타워 19층
전화 02-410-9123
팩스 02-418-1316
웹사이트 <http://photomuseum.or.kr>
이메일 research@photomuseum.or.kr

발행인 송영숙
기획 한국사진문화연구소
편집인 최봉림, 김소희, 장정민
디자인 한스그래픽
출력인쇄 그래픽코리아
발행일 2014년 12월

© 2014 Korea Institute of Photography and Culture All rights reserved.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한국사진문화연구소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해당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s.

ISSN 2093-2731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 근현대 사진사와 관련된 사진 및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된 자료는 사진문헌의 부재와 소실로 척박한 환경에 처해있는 한국사진사 연구에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Hanmi Science Co., Ltd.**

| | |
|----|-------------------------------|
| 5 |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제9호를 발간하며 |
| 7 | 임응식 스크랩북 및 녹화물 총 목록집 해제 / 김소희 |
| 10 | 일러두기 |

— 자료 목록

| | |
|-----|-----------------------------------|
| 13 | 임응식 스크랩북 자료(총 33권) |
| 15 | 임응식 스크랩북 1~18권 : 한국사진사, 임응식 관련 자료 |
| 279 | 임응식 스크랩북 19~29권 : 잡지기사 발췌 |
| 371 | 임응식 스크랩북 30~33권 : 임응식 육필 노트 |
| 405 | 임응식 녹화물 자료(총 30개) |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제9호를 발간하며

최 봉 립 /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소장

한국사진사가 여전히 미진하고 어리숙하게 보이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사진학과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부추길 학제는 형성되지 않았고, 그것은 연구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수요가 거의 없는 터라, 한국사진사 연구를 삶의 방편으로 삼는 인원은 아주 희귀한 예로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연구를 자극할 문헌의 부재로 이어졌고, 문헌의 부재는 사진사 기술의 수준을 담보상태로 머물게 했다. 그러는 동안 문헌을 가능케 하는 사료는 시간의 파괴작용으로 소실되었고, 수장고와 서가에서 유폐되었다. 공개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사료는 또다시 문헌의 부재로 이어졌고, 그것은 또다시 사진학과와 사진학계, 더 나아가 학계의 무관심을 부르고 말았다.

이러한 악순환은 한국에 사진이 도입된 개화기, 사진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일제강점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960년대, 심지어는 1970년대도 마찬가지다. 사료들은 쓸모없는 서류처럼 버려지거나 처박혔고, 몇몇 연구자들의 서재에서 잠을 자는 형편이다. 그것을 활용할 연구인력의 부족, 그것을 출판할 예산의 부재는 한국사진사 연구를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2013년,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고 임응식 선생의 장남, 임범택 선생으로부터 구멍 뚫린 한국사진사를 메워줄 사료들을 구매했다. 임응식의 사진 일생이 오롯이 담긴 자료였다. 임응식과 함께한 한국사진사가 꼼꼼하게 보존된 자료였다.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거의 1년에 걸쳐, 이 사료가 한국사진사의 문헌으로 연결되길 기대하며, 그 목록집 발간을 준비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그 주요 내용의 전문을, 또 다른 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 소중한 자료들을 한평생 모으신 임응식 선생께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이 귀한 자료를 온전하게 보전해, 한국사진사의 공백을 일부나마 메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유족에게도 발간의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2014년 12월